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 연구

민재홍*

<目 次>

1. 들어가기
2.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 분석 방법
 - 2.1 형태소 의미 분석 (語義構成分析)
 - 2.2 형태소 품사 성질 분석 (詞性構成分析)
3. 『說文解字』와 『顏氏家訓』의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
 - 3.1 『說文解字』의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
 - 3.2 『說文解字』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의 형태소 품사성질(詞性)
 - 3.3 『顏氏家訓』의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
4.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 어순(字序)
5. 나가기

1. 들어가기

上古시대 중국어의 語音과 語法 사이에는 일대일 대응 관계가 존재하였다. 語音의 구성 단위가 음절(音節)이고, 語法的 구성 단위가 낱말(詞)이라고 한다면, 음절과 낱말 사이에는 대체적으로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였던 것이다. 즉 한 음절이 하나의 낱말을 표현하고, 한 낱말의 어음 형식이 바로 음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어의 발전 변화 과정 중, 성모, 운모, 성조의 세 방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중국어 어음체계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우선 성모는 濁音이 淸音으로 바뀌었고, '知'字章이 권설음으로 합류되었고, '精'兒이 설면음으로 분화되었으며, 영성모가 대량으로 증가하였다. 운모를 살펴보면, 宋代『廣韻』에 보이던 142개의 운모가 현대중국어에서는 36개로 대폭 합쳐지게 되었다. 또한 성조면에서는 入聲字가 平上去의 세 성조로 나누어 들어가게 되었고,

* 덕성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jhmin@duksung.ac.kr

입성 운미와 [-m]운미의 소실은 운모 체계에 대단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세 방면의 변화로 인해 중국어 어음 체계가 깨지게 되면서, 음이 서로 같은 낱말들이 대량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결국 언어사용자들은 음이 서로 같은 낱말들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의사 소통과 교류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서서히 한 음절과 한 낱말의 일대일 대응 관계(一字一義) 역시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으로 대량의 다음절 낱말들이 형성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도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 글은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을 목표로 한다. 先秦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병렬 구조 복합어를 어떤 방법으로 살펴볼까 라는 고민에서 출발하여 그 낱말들에 대한 분석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병렬구조 이음절 복합어를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론의 관점인 형태소의 의미 분석(語義構成分析)과 통사론의 영역인 형태소의 품사 성질 분석(詞性構成分析)으로 구분하여 의미론적 접근과 동시에 형태론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古代典籍 중, 『說文解字』와 『顏氏家訓』에 사용된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를 찾아보았다.

또한 이음절 복합어 AB를 이루고 있는 형태소 A와 B의 어순이 어떻게 결정되고 형성되었는지를 연구하였다. 이음절 BA가 아닌 AB가 된 이유, 그 순서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2.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 분석 방법

中古 시기는 중국어 낱말의 복음절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 대량의 복음절사가 등장하는데, 그 구성 방식을 보면 병렬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병렬구조 이음절 복합어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복합어를 이루고 있는 형태소의 의미 분석(語義構成分析)은 의미론의 관점이 될 것이고, 형태소의 품사 성질 분석(詞性構成分析)은 통사론의 영역이 될 것이다.

2.1 형태소 의미 분석 (語義構成分析)

병렬구조 이음절 복합어(AB)를 구성하는 형태소 A와 B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면 同義 구조, 類義 구조, 反義 구조로 나눌 수 있다.

2.1.1 同義 병렬 구조

同義 구조 병렬 복합어의 예는 상당히 많다. ‘微細, 知識’의 예를 살펴보면, ‘微’와 ‘細’는 모두 ‘나이가 어리다’는 뜻으로, 두 글자가 합해져서 ‘어린 나이’를 의미하는 복합어가 되었다. ‘知’와 ‘識’은 모두 ‘知道, 了解(알다)’라는 의미를 갖는 글자였는데, 中古漢語에서 복합어가 되면서 ‘朋友, 認識的人’(친구, 아는 사람)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현대 중국어의 ‘知識(지식)’이라는 의미와는 완전히 다르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¹⁾

이러한 同義의 복합어 중 그 의미를 분석해 보면, ‘本義+本義’, ‘本義+引申義, 引申義+本義’의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두 번째 형태의 예가 가장 많다.²⁾

同義 병렬 구조 복합어를 구성하는 두 형태소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고 발전하기도 한다. 따라서 두 형태소의 의미 관계를 낱말이나 형태소의 의미가 결정된 시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新舊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형태소의 의미가 결정되는 시기를 갑골문과 금문을 포함한 先秦 시기, 兩漢 시기, 魏晉南北朝 시기로 본다면, 앞선 시기의 형태소가 舊의미를 가질 것이고, 뒤 시기가 상대적으로 新의미가 될 것이다.³⁾ 따라서 同義 구조 병렬 복합어를 이

1) ‘微細’와 ‘知識’이 사용된 中古漢語 문헌을 찾아보면, 『六度集經』 권2에 “吾有兩兒, 皆尚微細”(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모두 아직 어리다)라는 기록이 보이고, 『彌沙塞部誦經五分律』 권1에 “王舍城典材舍, 是我知識”(왕궐의 城典材舍는 내가 아는 사람이다)라는 전적을 찾아볼 수 있다.

2) 徐流는 「論同義複詞」에서, 同義 병렬구조 이음절 복합어의 형태소 의미 결합 방식을 ‘本義+本義, 本義+轉義, 轉義+轉義, 古義+今義, 雅通義+方俗義, 本有義+借用義, 固有義+臨時義’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同義 병렬구조 이음절 복합어의 형태소 의미 결합의 종류를 상당히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先秦시기, 兩漢시기, 魏晉南北朝 시기에 중국어 낱말은 이미 복음절의 경향을 향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 분석하는 이음절 복합어를 구성하는 형태소는 이시기에 단음절 字로서 의미를 갖

루는 두 형태소 사이의 신규 의미 결합 방식에 따라, ‘舊詞素 + 舊詞素’, ‘舊詞素 + 新詞素’, ‘新詞素 + 舊詞素’, ‘新詞素 + 新詞素’의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舊詞素 + 舊詞素’의 형태로 구성된 동의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는, 이음절을 구성하는 두 개의 형태소 의미가 先秦 兩漢(上古漢語)시기에 출현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牆壁, 追逐, 約束’ 등을 들 수 있다.

‘牆’은 先秦문헌에 자주 사용되었다. 『詩經』, 『論語』, 『孟子』 등에 보이고, ‘壁’ 역시 『禮記』, 『史記』, 『爾雅』 등에 常用되었다. 형태소의 의미가 이른 시기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舊詞素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牆壁’이라는 형태의 복합어는 東漢시기 문헌 『論衡』에 보이기 시작했고, 魏晉시기에 들어오면서 보편화되었다.

‘追’와 ‘逐’은 모두 갑골문에 사용되었고, 각각 형태소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舊詞素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追逐’는 東漢시기 『史記』, 『三國志』에 이음절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同義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 중, ‘舊詞素 + 新詞素’는 수량이 비교적 제일 많은 형태이다. 이음절 복합어 중, 첫 형태소는 先秦 이전의 문헌에서 보이고, 뒤 형태소는 漢代 이후에 의미가 사용된 경우이다. 예를 들면, ‘書寫, 波浪, 居住, 甘肅’ 등을 들 수 있다.

‘書’는 ‘쓰다’라는 의미로, 『周禮』, 『左傳』, 『詩經』 등에 사용되었고, ‘寫’는 ‘書’보다 늦은 시기인 『睡虎地秦墓竹簡』에 처음 사용되었다. 따라서 新詞素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同義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 중, ‘新詞素 + 舊詞素’의 결합은 숫자가 제일 적은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舊詞素가 먼저 오고, 新詞素가 뒤에 추가되는 형태가 많은데, 이 형태는 거꾸로 新詞素가 앞에 오고, 舊詞素가 뒤에 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橋梁, 進入’을 예로 들 수 있다.

‘橋’와 ‘梁’은 모두 갑골문에 사용되지 않았고, 先秦 문헌에도 ‘梁’이 주로 사용

는 一字一義의 형태인 詞의 어법 단위에 해당한다.

되고, '橋'는 사용되지 않았다. 戰國 시대 이전 문헌에는 '梁'만 사용되고 '橋'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新詞素 + 舊詞素'의 결합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新詞素 + 新詞素' 결합의 복합어도 그 예가 많지 않은데, 예를 들면 '伴侶'를 들 수 있다. '伴'은 원래 동사로 '陪同'(수행하다, 동반하다)의 의미를 갖는 단어였다. 후에 새롭게 명사로 사용되면서 '同伴'(동반자)라는 새로운 의미(新義)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侶'도 漢代에 사용되기 시작한 新詞素이다. 따라서 이 '伴侶'를 '新詞素 + 新詞素'의 결합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2.1.2 類義 병렬 구조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를 구성하는 두 형태소의 의미가 서로 비슷하고, 같은 유형의 성질이나 현상을 갖는 것으로 두 형태소가 함께 사용되는 형태를 말하는데, 類義 병렬 구조 또는 相關 병렬 구조로 불린다.

예를 들면, '窗戶, 領袖, 首領, 要領' 등이다. 이러한 유형의 복합어는 先秦시기 이미 출현하였고, 漢代에 이르러 그 수량이 대량 증가하였다. 이 유형의 복합어 특징은 주로 품사가 명사라는 것이다. 이 유형의 확산이 병렬구조 이음절 복합어 낱말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中古漢語(東漢~隋)에도 이러한 유형의 복합어가 많이 보이는데, 복합어를 구성하는 두 형태소의 의미가 서로 비슷하고, 형태소 품사 성질(詞性)도 같은 형태이다.

예를 들면, '聰明, 飢渴' 등이 있는데, '聰'의 본래 의미는 '聽得清楚'(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이고, '明'은 본래 '看得清楚(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서로 유사한 의미를 갖는 자가 결합하여 병렬구조 이음절 복합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飢渴'의 '飢'는 본래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서 '肚子餓(배가 고프다)'라는 의미이고, '渴'은 오랫동안 마시지 못해서 '嘴里乾(목이 마르다)'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현재는 통칭되어 한 낱말로 사용된다.⁴⁾

2.1.3 反義 병렬 구조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를 구성하는 두 형태소의 의미가 서로 반대되고 상반되는 유형으로, 이러한 유형의 복합어는 先秦시기에 출현하였지만, 그 수량이 많지 않았고 명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중고시기에 이르러 명사, 동사, 형용사 등 품사가 다양해졌고 그 숫자도 대량으로 증가하였다. '消息, 利害, 忘記, 左右, 早晚' 등이 그 예이다.

'良薄, 語默'도 이 유형에 속하는데, '良'은 '土質好'(토질일 좋음)을 의미하고, '薄'은 '土質壞'(토질이 나쁨)을 의미한다. 이 反義에 의미하는 형태소(사용 당시에는 字 結 詞)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복합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語默'의 '語'는 '說話(말)', '默'은 '沈默(침묵)을 의미하는데, 이 역시 反義의 형태로 함께 결합되어 한 낱말이 형성된 경우이다.⁵⁾

이상의 同義, 類義, 反義 구조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복합어를 살펴보면 同義 구조 병렬 복합어이다.

2.2 형태소 품사 성질 분석(詞性構成分析)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에 대한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합어를 구성하고 있는 두 형태소 A와 B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의 복합어에 대한 조어법(構詞法) 연구는 주로 낱말의 조합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가의 형식적인 분류에 주목하였지만, 최근의 연구는 낱말을 더 분절하여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의 내부적인 규율들을 궁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4) '聰明'과 '飢渴'이 사용된 문헌을 살펴보면, 『寤愚經』 권13에 "聰明廣學, 宋古達今"(총명하고 학문에 넓어, 지금에 이르렀다)라는 기록이 있고, 『悲華經』 권3에 "有諸鐵鬼, 受飢渴苦"(여러 굶주린 귀신들이 있었는데, 기갈고 고통을 받았다)라는 예가 보인다.

5) '良薄'과 '語默'이 사용된 문헌을 살펴보면, 『齊民要術』에 "地勢有良薄, 山澤有異宜"(지세에는 좋고 나쁨이 있고, 산택에는 각기 다름과 마땅함이 있다)라는 기록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陶淵明의 『與殷晉安別』에 "語默自殊勢, 亦知當乖分"(말이 있고 없음을 따라 스스로 세가 달라지고, 또한 나누어짐도 알 수 있다)라는 예가 보인다.

병렬식 이음절 복합어를 분절하여 형태소 A와 B로 나누면, A와 B는 동일한 품사 성질을 갖는다. 즉 A가 명사성 형태소이면 B도 역시 명사성 형태소이고, A가 동사성 형태소이면 B도 동사성 형태소이어야 병렬식 복합어의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를 형태소의 품사 성질(詞性)에 따라 분석하면, 형태소 A와 B의 품사성질과 복합어 AB의 품사가 일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2.2.1 형태소 A와 B의 품사성질(詞性)과 복합어 AB의 품사(詞類)가 일치

A와 B가 결합된 AB의 품사와 A와 B 두 형태소의 품사 성질이 일치하는 것이다. 즉 형태소 詞性과 낱말의 詞類가 일치하는 경우이다. 우선, '명사성 형태소 + 명사성 형태소 : 명사'의 형태인데, '夫妻, 父母, 兄弟, 君臣, 手脚, 領袖, 朋友, 頭腦, 尺寸, 規矩'를 예로 들 수 있다. 명사성 형태소의 병렬로 이루어진 복합어로, A와 B가 결합된 AB의 품사(詞類)와 A와 B 두 형태소의 품사 성질(詞性)이 일치한다.

'동사성 형태소 + 동사성 형태소 : 동사'의 형태도 있는데, 이는 '創建, 傳播, 成立, 寵愛, 信任, 愛撫, 捨捨, 觀察, 消滅, 傷害'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형용사성 형태소 + 형용사성 형태소 : 형용사'의 형태로는 '健康, 善良, 誠懇, 好歹, 善惡, 沈重, 粗細, 大小, 長短, 遠近'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병렬구조 이음절 복합어를 中古漢語 시기의 문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禍難'과 '晨夕'은⁶⁾ '명사성 형태소 + 명사성 형태소 : 명사'의 예로, 형태소 詞性과 낱말의 詞類가 명사로 일치하는 경우이다. '空窮'과 '僻錯'은⁷⁾ '형

6) 『異苑·劉惔』에 "若與之言, 必遭禍難"(만약 이를 말한다면, 반드시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하여, '禍難'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禍難'은 복합어가 되어 '禍害災難(화, 재앙)'의 의미를 갖는다. '晨夕'은 陶淵明의 '移居'에 "閑多素心人, 樂與數晨夕"(결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듣는다면, 수많은 아침저녁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7) '空窮'의 예는 『賢愚經』의 "今者空窮, 何由可得?"(지금 곤궁함은 대체 어디에서 얻은 것인가?)라는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고, '僻錯'은 『世說新語』에 보이는 "孫興公有一女, 亦僻錯(손 흥공에게는 한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꽤 어리석었다)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사성 형태소 + 형용사성 형태소 : 형용사'의 예이고, '見睹'와 '濟救'는⁸⁾ '동사성 형태소 + 동사성 형태소 : 동사'의 예이다.

한편, 同素詞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 형태소가 동일한 두 개의 복합어 AB(상용식)과 BA(변형식)이 서로 병렬관계로 이루어진 경우인데, 두 낱말을 구성하는 네 개의 형태소 품사 성질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데, 두 낱말 AB와 BA를 구성하는 네 개의 형태소 품사 성질이 동일하고, 그 형태로 만들어진 낱말들의 품사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이다.⁹⁾

煎熬(動형태소+動형태소:동사) / 煎熬(動형태소+動형태소:동사)
長久(形형태소+形형태소:형용사) / 久長(形형태소+形형태소:형용사)
窗紗(名형태소+名형태소:명사) / 紗窗(名형태소+名형태소:명사)
來往(動형태소+動형태소:동/명) / 往來(動형태소+動형태소:동/명)

2.2.2 형태소 A와 B의 품사성질(詞性)과 복합어 AB의 품사(詞類)가 불일치

'開關, 興亡, 成敗, 編輯, 校對, 翻譯, 裁判, 負擔, 保管, 編審'은 모두 '동사성 형태소 + 동사성 형태소'의 형태로 이루어진 병렬구조 복합어이다. 그런데 동사성 형태소의 병렬 구조로 결합된 이 낱말의 품사는 모두 동사가 아니라 동사와 명사를 겸하는 겹품사이다.

'開'와 '關'은 모두 詞性이 동사인데, '開關'은 동사 뿐만 아니라 명사로도 사용되는 겹품사이기 때문에, 형태소 A와 B의 품사성질(詞性)과 복합어 AB의 품사(詞類)가 불일치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이 유형을 도식화하면 '동사성 형태소

가?)라는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고, '僻錯'은 『世說新語』에 보이는 "孫興公有一女, 亦僻錯(손 흥공에게는 한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꽤 어리석었다)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見睹'는 『太平經』에 "實不見睹其人可欲"(실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히 바랄 수 있겠는가?)라는 기록에서 그 쓰임을 확인할 수 있고, '濟救'는 『三國志華佗傳』에 "此病後三期當發, 遇良醫乃可濟救"(이 병은 삼주 후에 발생할 것인데, 좋은 의사를 만나야 가히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9) 민재홍(2000), 「현대중국어의 이음절 복합어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참조.

+ 동사성 형태소 : 동사/명사'가 된다.

또 다른 유형을 보면, '동사성 형태소 + 동사성 형태소 : 명사'의 구조를 찾아 볼 수 있다. 병렬식 이음질 복합어 AB의 품사가 명사인 경우인데, 예를 들면, '警察, 教授, 顧問, 裁縫, 守備, 參謀, 參贊, 巡撫, 給養, 書記' 등이다. '警'과 '察'은 모두 동사성 형태소의 결합인데, '警察'의 품사는 동사가 아닌 명사임을 알 수 있다.

즉 두 개의 동사성 형태소가 결합하여 낱말을 이룰 때, 그 품사는 동사이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형태소에서 낱말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품사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예는 中古漢語에도 자주 보이는데, '新故'와 '偏斜'를¹⁰⁾ 예로 들 수 있다. 모두 '형용사성 형태소 + 형용사성 형태소'의 결합이지만, 복합어의 품사는 명사로 바뀌는 예이다. 즉 '형용사성 형태소 + 형용사성 형태소 : 명사'의 유형인 것이다.

同素詞의 경우에도, 형태소의 품사 성질은 동일하지만 그 형태소로 이루어진 낱말들끼리는 품사가 달라지는 예가 있다.

願意(動형태소+動형태소:동사) / 意願((動형태소+動형태소:명사)
 查檢(動형태소+動형태소:동사) / 檢査(動형태소+動형태소:동사/명사)
 萬千(數형태소+數형태소:형용사) / 千萬(數형태소+數형태소:수사/부사)
 闇熱(形형태소+形형태소:형용사) / 熱闇(形형태소+形형태소:형/명/동)

이처럼 同義 병렬 이음질 중 AB와 BA의 형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형태소 결합이 비교적 자유롭고, 아직 고정되지 않은 형태이고, 낱말의 구성 방식에 있어 한정하지 못했던 결과로 이해한다.

10) 漢詩인 『竹林郎』의 “人生有新故, 貴賤不相離”(인생에는 새로운 사람과 옛사람이 있지만, 귀천은 서로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구절에서 '新故'의 쓰임을 찾을 수 있다. '偏斜'는 焦仲卿의 아내가 지은 古詩에 보인다. “女行無偏斜, 何意致不厚”(여자의 행실에 잘못도 없는데, 어찌하여 야박하게 다루시옵니까)에서 '偏'과 '斜'는 모두 형용사성 형태소이지만, 두 자가 결합된 뒤에는 품사가 명사로 바뀌었다.

이러한 어휘들은 의미적으로는 동의어에 속할 수 있지만, 어법적으로는 어법 기능이 완전히 달라져 문장에서 쓰이는 쓰임새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특히 이러한 어휘들은 원어민이 아닌 외국인이 생각할 때에는 그 어법기능을 혼동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

3. 『說文解字』와 『顏氏家訓』의 병렬 구조 이음질 복합어

3.1 『說文解字』의 병렬 구조 이음질 복합어

『說文解字』에서 許慎은 9353字의 글자를 풀이하였는데, 그 풀이방식은 'A, B也'이다. 풀이되는 글자 A와 풀이하는 글자 B의 관계는 뜻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다. 또는 서로 通用되는 글자도 있다. 따라서 이 A와 B는 서로 함께 사용되어 병렬구조 이음질 복합어 AB가 만들어지고 사용되게 된 것이다. 『說文解字』에 사용된 'A, B也' 풀이 방식을 분석하면, 이후 병렬구조 이음질 복합어 AB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3.1.1 A, B也 → AB (BA)

幼, 稚也 → 幼稚	覺, 悟也 → 覺悟
珍, 寶也 → 珍寶	疾, 病也 → 疾病
束, 縛也 → 束縛	玩, 弄也 → 玩弄
餓, 飢也 → 飢餓	疲, 勞也 → 疲勞
寄, 托也 → 寄託	

이상의 예들은 AB 형식의 순서를 갖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형태의 복합어이다. 한편, BA의 순서를 갖는 반대 형태의 복합어도 보이는데, 이는 그다지 많지 않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就, 成也 → 成就 啓, 開也 → 開啓
 ‘就’를 ‘成’으로 풀이하였다면, 당연히 ‘就’의 의미 친밀도가 강할 것이고, 당연히 ‘成就’이라는 복합어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역순인 ‘成就’가 된 경우이다.

3.1.2 A, C也 ; B, C也 → AB

이러한 유형을 살펴보면, A를 C로 풀이하고, B도 C로 풀이한 同訓의 형태이다. 따라서 A와 B의 의미도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복합어 AB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 예는 많지 않은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解, 判也 : 釋, 判也 → 解釋

3.1.3 A, B也 ; B, A也 → AB

이러한 풀이 방식은 이미 『爾雅』에 그 단초가 보이는데, 『爾雅·釋詁』에 “伊, 維也. 伊·維, 侯也.”(伊는 維이다. 伊·維는 侯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爾雅·釋言』에도 “潛, 深也. 潛·深, 測也”(潛은 深이다. 潛·深은 測이다)라는 풀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영향이 漢代 이후 보편적이 풀이방식으로 굳어졌고, 병렬구조 이음질 복합어의 탄생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說文解字』에서도 ‘A, B也 ; B, A也’라고 서로 돌아가면서 풀이해주는 互訓의 방식이 사용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어 AB가 형성된 유형이다.

警, 戒也 : 戒, 警也 → 警戒
 甘, 美也 : 美, 甘也 → 甘美

3.1.4 A, B也 ; B, C也 → AC

뜻을 연쇄적으로 풀이하는 遞訓의 형태인데, 이러한 遞訓의 방식도 『爾雅·釋

言』에 보인다. “葵, 揆也. 揆, 度也.”(葵는 揆이다. 揆는 度이다)라는 기록이 그 예이다. 漢末 『釋名』의 『釋典藝』에도 이러한 풀이 방식이 보이는데, “爾, 昵也. 昵, 近也.”(爾는 친하다는 뜻이고, 昵은 가깝다는 뜻이다)이다. 또 “雅, 義也. 義, 正也.”(雅는 의롭다는 뜻이고, 義는 올바르다는 뜻이다)에서도 遞訓의 풀이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說文解字』에도 다음과 같은 예가 보인다.

判, 分也 : 分, 別也 → 判別

3.2 『說文解字』 병렬 구조 이음질 복합어의 형태소 품사성질(詞性)

『說文解字』에 보이는 병렬구조 복합어를 고찰하면서, 그 복합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품사 성질(詞性)을 분석하면, ‘명사+명사’, ‘형용사+형용사’, ‘동사+동사’의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병렬구조 이음질 복합어 분석의 유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명사+명사’의 예로는 ‘髣髴 技巧 肌肉 繩索 珍寶 嚮聲 將帥 仇敵 飯食’ 등을 들 수 있다. ‘형용사+형용사’의 구조는 ‘枯槁 壯大 榮華 迅速 謹慎 憂愁 飢餓 誠信 整齊 甘美 腐朽 奇異’ 등이 보인다. ‘동사+동사’의 유형은 ‘驚駭 更改 琯弄 責求 賜予 招呼 貶損 償還 覺悟 束縛 寄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說文解字』 중에는 한 字에 대하여, 서로 다른 字로 풀이를 한 경우가 있다.

充, 滿也 → 充滿
 充, 塞也 → 充塞
 充, 足也 → 充足
 充, 當也 → 充當

‘充’¹¹⁾에 대한 풀이로, 여러 글자가 등장하면서, 이 낱말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지만, ‘滿, 塞, 足, 當’의 풀이에 따라, 각각 ‘充滿,

11) 『說文解字』에 “充, 長也. 高也. 從儿, 育省聲”(充은 크다 또는 높다는 뜻이다. 儿은 의미부분이고, 育자에서 肉부분이 생략된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充塞, 充足, 充當'이라는 각기 다른 병렬구조 이음절 낱말이 생겨나면서, 언어사용자는 드디어 이 낱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구분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 것이다.

위와는 반대로, 서로 다른 字에 대하여 동일한 字로 풀이를 한 경우도 있다. '啓, 辟, 張'을 모두 '開'로 풀이하였고, 여기에서 '開啓, 開辟, 開張'과 같은 병렬구조 복합어가 형성된 것이다.

啓, 開也 → 開啓
辟, 開也 → 開辟
張, 開也 → 開張

3.3 『顏氏家訓』의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

魏遂純은 『顏氏家訓』¹²⁾에 사용된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를 분석하였는데, 모두 1192개의 병렬구조 이음절 복합어가 사용되었고, 그중에 89개가 反義 형태의 복합어임을 통계해냈다. 현대 중국어에 상용적으로 사용되는 反義 복합어가 371개라는 통계를 인정할 때, 89개의 反義 복합어가 이미 南北朝 시기의 中古漢語를 대표하는 『顏氏家訓』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중고한어 시기 병렬구조 이음절 복합어의 대량 출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이음절 형태인 AB는 A와 B의 결합 정도가 아직 강하지 않기 때문에, A라는 낱말과 B라는 낱말의 의미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구(詞組)의 형태인 것도 있고, 이미 하나의 단어(詞)로 굳어져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현대 중국어에는 이음절 복합어가 모두 한 개의 낱말인데 반해, 이 시기는 낱말 형성의 과도단계인 만큼 그 중간형태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3.3.1 詞組

12) 南北朝시대의 지식인이었던 顏之推(520~590)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후손들에게 남긴 훈계의 글로, 최고의 가훈서일 뿐만 아니라 사료적 가치도 높다고 인정받고 있다.

〈存亡〉

國之存亡, 系其生死(국가의 존망에 따라, 그 생사가 달려있다)

『顏氏家訓·慕賢』

여기서 '存亡'은 국가의 '존속과 멸망'을 의미하므로, '存'과 '亡' 각각이 한 개의 의미를 갖는 낱말로, '存亡'은 여전히 詞組의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輕重〉

學之興廢, 隨世輕重(학문의 흥폐는 세상에 그것을 가벼이 하는지 중시하는지를 따라 간다)

『顏氏家訓·勉學』

여기서 輕重은 '경시와 중시'를 의미하고, 각각의 字가 의미를 갖는 詞組의 형태이다. 그러나 현대중국어의 '輕重'은 이미 하나의 낱말로, '무게, 경중'이라는 多義의 의미항목(義項)을 갖는다.

3.3.2 詞

〈消息〉

考校是非, 特須消息(옳고 그름을 살피고, 특히 잘 고려해 보아야한다)

『顏氏家訓·書證』

'消'의 본래 의미는 '消滅'(소멸)이고, '息'의 本義는 '增加'(증가)인데, 이 두 형태소가 결합하여 하나의 낱말이 되면서, 의미는 '斟酌, 考慮'(검작하다, 고려하다)의 동사가 된 경우이다. 六朝시기 이미 이 낱말은 각각 형태소가 갖고 있는 本義와는 거리가 먼 새로운 낱말이 되었다.

3.3.3 詞組 또는 詞

〈左右〉

列器玩於左右(기구를 늘어놓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놓고 있다)

『顏氏家訓·勉學』

問左右, 此是何物?(아랫사람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물건인가?)

『顏氏家訓·地學』

첫번째의 ‘左右’는 왼쪽과 오른쪽의 의미를 그대로 갖는 詞組에 해당한다. 반면, 두 번째의 ‘左右’의 의미는 先秦 이래로 지속된 용법으로, ‘手下人, 僕人’(아랫사람)을 의미하는 하나의 낱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顏氏家訓』 시기는 이음절 복합어가 하나의 낱말로 굳어지기 이전의 과도형태로서, 詞組, 詞, 詞組와 詞를 동시에 겸하는 세 유형으로, 용법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 어순(字序)

형태소의 의미가 동일한 A와 B,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등의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인 AB 또는 BA가 생겨날 때, A와 B 두 글자의 어순(字序)은 어떤 형태를 거치면서 결정되었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중국 언어학자들의 초기적인 연구는 낱말의 의미에서 출발하였다. 즉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 습관에 주목하였다. 즉, 낱말의 구조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사용자들의 객관세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언어 外의 요건인 것이다. 자연세계에 대한 인식이나 순서에 의해 낱말의 어순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예를 들면, ‘前後, 先後, 早晚, 朝夕, 古今, 始終, 春秋, 晝夜’ 등의 경우는 언어 사용자의 ‘시간 순서 인식’에 의해서 낱말의 어순이 결정된 것이고, ‘上下, 前後, 表裏, 左右, 東西, 南北, 內外, 里外’ 등은 ‘위치와 방위’에 따라 낱말의 선후가 정해진 것이다. 또, ‘進退, 出入, 授受, 興奪, 收發, 賣買, 漲落, 去留’ 등은 ‘동작의 운동방향’에 따라 낱말의 선후 어순이 정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사회 문화적인 질서도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의 어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인들의 사유 속에 깊게 형성된 심리 상태나 생각 습관에 따라 낱말의 어순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夫妻, 男女, 父母, 爹娘, 兄弟, 姐妹, 君臣, 公婆, 仙凡, 日月’ 등은 중국인의 ‘일상적인 道理’를 반영한 것이고, ‘사물 인식에 대한 경향’을 반영하여 어순이 정해진 복합어를 살펴보면, ‘快慢, 粗細, 遠近, 明暗, 寬嚴, 安危, 是非, 大小, 長幼, 貴賤, 高低, 利害’ 등을 들 수 있다.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의 어순을 연구했던 많은 학자들은 이상과 같은 ‘의미의 영향, 언어사용자들의 約定俗成’에 주목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의 어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조의 영향’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陳愛文·于平(1979)은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의 글자 순서(字序)가 대부분 성조 平上去入의 배열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형태소 AB의 성조를 분석하면, ‘平上·平去·平上·上去·上入·去入’의 방식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普通話三千常用詞表』에 사용된 523개의 병렬구조 복합어의 字序를 고찰한 결과, 대부분의 낱말들이 ‘平上·平去·平上·上去·上入·去入’의 順調 방식과 ‘平平·上上·去去·入入’의 同調 방식이었다. 順調 방식 여섯 종류의 예로는 ‘平上(標點), 平去(安靜), 平入(包括), 上去(比賽), 上入(把握), 去入(正確)’을 들 수 있다. 同調 방식 네 종류는 ‘平平(開關), 上上(感想), 去去(計算), 入入(學習)’로 예를 들 수 있다. 이상의 이음절 복합어는 모두 성조가 순서가 자연스럽게 순서를 갖추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아마도 이는 언어 사용자들의 발음 방식에 있어서, 성조의 순서가 자연스럽게 개입되어 편안한 느낌을 주게 되었고, 이것이 이음절의 어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陳愛文·于平의 523개 중, 135개는 이러한 자연스런 성조의 순서에 반하는 逆調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上平·去平·去上·入平·上上·入去’라는 逆調 방식 여섯 종류를 찾아보면, ‘上平(保持), 去平(健康), 去上(要緊), 入平(國家), 入上(恰巧)’를 예로 들 수 있다.¹³⁾

『說文解字』에 사용된 병렬 복합어의 어순 관계를 順調, 同調, 逆調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說文解字』에는 互訓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同義 병렬 복합어가

13) 陳愛文 于平의 523개 병렬구조 복합어에서, ‘去去’의 예를 찾을 수 없다.

124개 사용되었고, 이 중 84개의 복합어는 현대 중국어에도 상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124개의 복합어의 字序를 살펴보면, 역시 '平平'이 28개, '上上'이 5개, '去去'가 12개, '入入'이 6개로 同調의 형식이 모두 51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順調

平上 : 珍寶 遼遠 更改 甘美 初始 枯槁 驚駭 妖婉 荊楚 趣走 依倚 窺閃
 平去 : 調和 應對 謀慮 誠信 歌咏 欺詐 捐弃 飢餓 容貌 慚愧 冰凍 排擠 投擲 纏繞
 平入 : 分別 追逐 逾越 皮革 食欲 繩索 梭柁 邦國 溝瀆
 上入 : 抵觸 喘息 里脊 恥辱 眼目
 上去 : 謹慎 警戒 恐俱 泛濫 左助
 去入 : 寄託 締結 誠救 敬肅 涕泣

逆調

上平 : 奉承 視瞻
 去平 : 招呼 對應 制裁 監臨 忿捐
 去上 : 祭祀 器皿 陷阱 捕取
 入平 : 跌宕
 入上 : 截斷
 入去 : 脊背 覺悟 疾病 刻鏤

『朱子語類』에 보이는 同義 이음절 복합어를 성조에 따라 어순을 살펴보면, 역시 비슷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順調

平上 : 奔走 褒獎 商賈 形體 遊泳 頭首 模範 隣近 原本
 平去 : 蹊徑 完備 牢固 窮盡
 平入 : 休歇 優戚 更革 田獵 違逆 奴僕 周匝
 上去 : 處置 苑囿 等候 府庫 緩慢 曉諭 舞蹈 倚傍 靠倚
 上入 : 咬嚼 醒覺 村度 果實 顆粒 啓迪 簡約 聚集 墮落
 去入 : 困乏 計度 障塞 料度 厭足 禁遏 淨潔

同調

平平 : 遲延 須當
 上上 : 主宰 總統 道理 踐履
 去去 : 措置 厭惡 議論 弊陋 賑濟
 入入 : 哭泣 卒念 急迫 悅懌 絕滅

逆調

上平 : 斧斤 本原¹⁴⁾ 隱藏 滿盈 混淆 繞纏
 去平 : 互相 叫呼 寇讎 面顏 路途 空閑
 去上 : 壽考 薦學 倚靠¹⁵⁾ 內裏
 入平 : 末梢 潔清 屈撓 適從
 入上 : 折轉 擇揀 息止
 入去 : 覺悟 窃盜 疾病 黑暗

이상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同義 이음절 복합어의 字序가 同調와 順調의 형식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逆調의 형식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同義 이음절 복합어의 어순을 결정함에 있어, 성조 순서가 자연스러운 順調와 同調를 병렬구조 복합어의 어순을 결정하는 하나의 규칙과 원칙으로 인정 하기에는, 예외에 해당하는 逆調 방식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陳愛文·于平的 523개 분석에서 발견된 135개의 逆調 형식, 그리고 『朱子語類』에 사용된 同義 이음절 복합어 중 약 1/3에 해당하는 逆調 형식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逆調 형식의 예외가 이렇게 여전히 존재한다면, 同義 병렬구조 이음절 복합어의 字序를 설명함에 있어 順調와 同調 형식이 완벽한 이론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逆調 형식으로 형성된 복합어의 字序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朱子語類』에 사용된 逆調 형식 중, '斧斤', '壽考', '叫呼', '路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4) 『朱子語類』에는 順調의 형태인 '原本'과 逆調의 형태인 '本原'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周旻은 이를 '同義逆序詞'라고 칭하였다.
 15) 이 경우도, 『朱子語類』에 順調의 형태인 '靠倚'와 逆調의 형태인 '倚靠'가 함께 사용된 '同素逆序詞'이다.

‘斧斤’의 형태소 성조를 보면 上平으로 逆調의 형태인데, 왜 ‘斤斧’로 사용되지 않고, ‘斧斤’의 어순으로 복합어가 형성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을까? ‘斧’와 ‘斤’은 갑골문에 이미 사용되었고, 본래 의미도 ‘도끼’의 의미로 차이가 없다. 그러나 先秦 문헌에 이르게 되면 사용이 달라지는데, 『詩經』에 8번 사용된 ‘斧’의 의미는 모두 ‘도끼’라는 뜻이다. 그러나 『戰國策』에 9번 사용된 ‘斤’의 의미는 ‘도끼’라는 뜻을 잃고 도량형의 단위인 ‘한 근’의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시기 『周禮』, 『左傳』, 『孟子』와 같은 先秦 문헌에 도끼를 표현할 때, ‘斧斤’이라는 하나의 낱말로 굳어져 사용되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斧斤’의 형성에는 형태소의 성조에 의한 順調라는 자연적인 순서보다는 언어 사용자들이 느끼는 낱말의 의미 수용 정도 면에서 ‘斤’ 보다는 ‘斧’가 훨씬 강했기 때문에 ‘斧’를 앞에 사용하여 ‘斧斤’ 어순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언어사용자들의 형태소에 대한 친밀한 정도, 익숙한 정도¹⁶⁾가 이음절의 어순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斧斤’과 마찬가지로, ‘壽考’ 역시 逆調 형식인데, 古代 중국어에서의 逆調 형태가 現代 중국어에서도 그대로 굳어져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叫’는 春秋시대에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呼’는 戰國시대에 ‘부르다’라는 의미가 형성되었다. 西漢시대 ‘叫呼’와 ‘呼叫’가 함께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언어 사용자들이 느끼는 ‘叫’의 의미 친밀도, 익숙도가 ‘呼’보다 높아서, ‘叫呼’가 明代까지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대중국어에 이르러, ‘叫呼’는 쓰이지 않고 ‘呼叫’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성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叫呼’와 ‘呼叫’ 두 형식 모두 사용되었지만, 현대 중국어에서는 한 형식만 사용되는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路途’ 역시 逆調와 順調 모두 사용되었지만, 현대 중국어에서는 ‘路途’의 형식만 사용된다.

한편,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의 어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모음(元音)의 高低

16) 이에 대해 중국 어법학자들은 ‘語義可接受度’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즉, 언어사용자들이 두 형태소의 의미 중,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높은 형태소가 앞쪽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를 지적할 수 있다. 이음절 복합어를 구성하는 두 형태소 중, 모음의 높이가 높은 형태소가 모음의 높이가 낮은 형태소의 앞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動彈, 池塘, 詩歌, 模樣, 犧牲, 平常, 命令, 發達, 東西, 補充, 應該, 簡單, 開手, 恐慌, 表揚, 勉強, 活潑’ 등의 두 형태소의 모음의 위치를 살펴보면, 앞쪽 형태소의 모음 위치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順調, 同調를 제외한 逆調의 복합어의 어순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언어 사용자의 익숙도, 친밀도 이외에 모음의 높이가 높은 형태소가 앞쪽에 위치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5. 나가기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는 병렬 관계에 있는 두 개의 형태소 A와 B로 이루어진 복합어를 말한다. 이들 A와 B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主從이나 偏正의 관계가 없어야 되고, A와 B 형태소가 대등하게 낱말의 의미를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保管, 成立, 觀察, 覺悟, 援助’ 등과 같은 낱말인데, 두 형태소가 대등하게 결합되어 한 낱말을 이루며, 이 낱말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동등하게 의미가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태의 복합어는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고,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처음에 이음절로 결합될 때, 언어 사용자들은 어떠한 생각과 원칙으로 이 복합어를 만들게 되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그 단어의 형성과정과 시작, 어순 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형태소의 의미 분석(語義構成分析)과 형태소의 품사 성질 분석(詞性構成分析)을 통해 복합어의 의미와 형태론적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아울러 이음절 복합어가 대량으로 증가하는 과도 시기에, 당시 사용되는 한자를 광범위하게 풀이해 놓은 『說文解字』의 뜻풀이에서, 이음절 복합어의 단조를 찾고, 그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병렬 구조 이음절 복합어의 어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과 요소

가 무엇일가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하였다. 단순히 언어 사용자들의 의식, 습관, 심리와 같은 '約定俗成' 설명으로는 복합어의 어순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다. 그렇다면 어순 결정의 결정적인 규칙과 원칙은 무엇일까? 이를 위해 同調, 順調와 같은 성조의 영향을 생각했고, 여전히 존재하는 逆調의 형식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언어 사용자들이 느끼는 의미 친숙도, 의미 익숙도, 모음의 고저 등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떨어지는 법칙을 얻어내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다. 후속 연구나 후학의 가르침을 기대하고 있다.

〈參考文獻〉

顧淑彬(1993), 「談談單音詞復音詞同義詞反義詞關係」, 廣西師院學報 第3期.
 董超鳳(1995), 「偏義復詞的偏義指向和語素序列」, 語文月刊 第10期.
 廖秋忠(1992), 「漢語中復合名詞和名詞性短語」, 廖秋忠文集.
 劉叔新(1985), 「漢語復合詞內部形式的特點與類別」, 中國語文 第3期.
 李建新(1991), 「搜神記復合詞研究」, 鄭州大學學報 第4期.
 閔載泓(2000), 『현대중국어의 이음절 복합어 연구』, 연세대학교.
 符淮青(1996), 『詞義的分析和描寫』, 語文出版社.
 徐流(1990), 「論同義復詞」, 重慶師院學報 第4期.
 孫繼善(1995), 「無義音節語素化的形成及特點」, 語文學刊 第5期.
 施茂枝(1999), 「述賓復合詞的語法特點」, 語言教學與研究 第1期.
 王樹齋(1992), 「漢語復合詞詞素義和詞義的關係」, 山東教育學院學報 第2期.
 王樹齋(1993), 「漢語復合詞詞素義和詞義的關係」, 漢語學習 第2期.
 王玉鼎(1994), 「論名詞性并列復合詞的詞義與語素義之關係」, 阜陽師院學報 第1期.
 王又華(1994), 「關於漢語同義單雙音節的教學」, 語言與翻譯 第4期.
 王政紅(1992), 「名形語素構詞格分析-復合詞構詞研究」, 南京師大學報 第4期.
 魏達純(1998), 「顏氏家訓中反義語素并列雙音詞研究」, 東北師大學報 第1期.
 張國憲(1992), 「并列式復合詞的語義構詞原則」, 漢語學習 第5期.
 丁喜霞(2006), 『中古常用並列雙音詞的成詞和演變研究』, 語文出版社.

鍾如雄(1991), 「偏義復詞成因初探」, 西南民族學院學報 第5期.
 周剛(1991), 「也議帶后綴化的詞」, 漢語學習 第6期.
 朱景松(1992), 「現代漢語中義項平行的多義復合詞」, 語文建設 第1期.
 周薦(1991a), 「復合詞詞素間的意義結構關係」, 語言研究論叢 第6期.
 周薦(1991b), 「語素逆序的現代漢語復合詞」, 邏輯與語言學習 第2期.
 周薦(1992), 「幾種特殊結構類型的復合詞」, 世界漢語教學 第2期.
 周薦(1995), 「復合詞構成的語素選擇」, 中國語言學報 第7期.
 陳愛文·于平(1979), 「并列式雙音詞的字序」, 中國語文 第2期.
 許光烈(1991), 「漢語詞彙雙音節化源流初探」, 內蒙古民族學院學報 第4期.

〈中文提要〉

本论文是对并列双音节复合词的全面考察。同义并列复合词是由两个单音同义词临时组合, 後來逐漸凝固形成的。首先在本论文, 研究并列双音节复合词的分析方法, 就是语义构成分析和词性构成分析。并列双音节复合词与汉以前文献中的单音同义词有着非常密切的关系。所以考察在说文解字和颜氏家训两部书使用的复合词。以说文解字中的互训词和同训词为材料, 对其演变的规律及原因进行了初步的探讨。又研究并列结构内词语的顺序问题。考察怎么决定词素A和词素B的字序。有的复合词从使用汉语的人们所习惯的观念决定字序。有的复合词从语音决定字序的观点和声调的影响决定字序。顺调和同调比较自然的。逆调是例外的。有的同义并列双音词中, 语义可接受度高的词素常常置前。人们通常习惯把语义可接受度高的词素置于前, 这是符合客观认知规律的。这篇文章又说明并列双音节复合词的字序从元音舌位高低受影响。

關鍵詞: 并列 双音节 复合词 语义构成分析 词性构成分析 字序 语义可接受度 元音舌位

이 논문은 2012년 5월 15일에 접수되어 2012년 6월 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2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